

성악가 음성평가 및 치료

호남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유 재 연

Background

이 연구는 전문 성악가를 위한 효과적인 음성평가 및 치료방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Methods

거칠고 심한 기식성 음성이 갑자기 발생하여 성악 공연을 그만 두어야 하는 소프라노 성악가를 대상으로 Singing Voice Handicap Index; SVHI, 음성위생권고, 기기를 통한 음성평가 및 컨설팅, 음성촉진법(speaking voice와 singing voice에 적절한 음성산출 훈련)을 실시하였다. 음성촉진기법으로는 총체적 음성치료법을 응용하여 적용하였다.

Results

5개월 간의 음성컨설팅 및 치료를 통해 SVHI 결과, 음성의 개선이 뚜렷이 나타났으며 음향학적 평가 결과, 소프라노 가수 음역에 적합한 speaking Fo를 유지하였고 음질검사 결과, Jitter, Shimmer, NHR 등에서 뚜렷하게 수치가 감소하였다. 음악공연에서 중요한 가창시 음역(singing pitch range)도 치료 전보다

넓게 나타났으며, 특히 치료 전 pitch break가 빈번히 나타나던 음계(tone)에서 안정적인 가창발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정기적인 음성검사와 상담을 통해 건강한 음성 산출을 유지하고 있다.

Conclusion

성악가를 대상으로 한 음성관리는 후두전문의와 언어재활사 그리고 성악교사(singing teacher)의 팀접근이 중요하다. 언어재활사는 가창 음성보다는 발화 음성에 관심을 갖고 발화 음성의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강한 음성을 유지하기 위한 음성위생을 권고해야 하며 일상적인 음성사용량의 조정에도 도움을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기적인 음성평가 및 컨설팅을 통해 성악가가 건강한 음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Keywords

성악가, 음성평가, 음성치료